

한국 여성 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The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Women Immigrant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강 사 서리나**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 Seo, Lee-Na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 II. 연구배경 | V. 연구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A study of 117 Korean immigrant women who had husband and(or) children in Hawaii found the 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networks composed supporters, support structure, and support contents. Psychological well-being examined family life satisfaction, family life stability, and women's psychological health. Results showed as followed. First, the choice of immigration place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and her family based on other family members and friends lived in there. Second, her supporters were family and relatives, Korean friends, foreign friends, religions, belonged organizations and groups, public agencies in Hawaii, and mass-media. The best supporters of them was family and relatives and they mostly provided mental health to Korean immigrant women. Family, Korean friends, foreign friends, and religions tended to support emotional assistance. Third, the lev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was higher. Her level of psychological health was higher than the others. Fourth, the best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child existence, occupation, and immigration duration. Fifth, psychological well-being significantly distinguished different relations of supporters from support structure of social network. The number and support duration with foreign friends supporter and the support duration and the level of perceived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37-H00011)

** 주저자, 교신저자 : 서리나 (smungchi@hanmail.net)

useful support content highly related with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사회적 지지(social network), 지지자(supporters),
지지 구조(support structure), 지지 내용(support contents),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기혼여성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역할과 그 책임을 안고 삶을 영위하는 듯하다. 가정단위 이민과 관련하여, 이민과 같이 주변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초차기혼여성의 가정역할과 책임 의식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다. Moon, S.S.(2003)는 중류층 한국 이민여성이 핵가족 중심의 가족 네트워크를 토대로 어머니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 이민여성이 국가를 초월하여 강한 가정 역할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Wang과 Tsang(2004)에 의하면 아시아 이민여성은 유교나 전통적인 가족관계,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과 복지를 위해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정체성을 표현하며 사회적 지지자나 지지 조직과 협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한다고 하였다. Kim과 Grant(1997)는 한국계 미국여성에 비해 기혼의 한국 이민여성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외에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므로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와 문화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가족 및 개인, 조직 수준에 따른 중재 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민여성의 경우 가정 역할과 그 책임에 대한 부담을 갖은 채 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 가중은 물론 심리적인 부담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변 생활환경에 개

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단위 이민여성이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 체계를 개발하여 가정생활의 기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을 일종의 가족자원관리 활동으로 보았다. 따라서 지지자들과의 사회적 지지를 잘 유지하는 것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적응에 기여하고, 가정역할의 주된 수행자로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변화된 생활세계에서 가정이 하나의 체계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와이 주의 가정단위 한국 이민은 1903년 하와이 이민이 시작될 때부터이다. 뒤이어 1910년 하와이에 온 700여명의 사진신부(picture brides)가 초기 한국인 이민자와 결혼하면서 가정단위 이민생활의 정착이 본격화되었다. 100여년에 걸쳐 생활환경의 적응 주체는 바로 기혼여성인 주부였고, 그들의 가정역할과 책임 의식은 현재 한인 이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은 초기 이민자와 그 가정에게 준거집단, 또는 정보제공자와 같은 지지자(supporters)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류층 가정단위의 이민이 증가하는 최근 추세(Yoon, 1997)에 비추어 하와이 주에 가정단위로 이민 온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구축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민여성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그 가정의 생활 만족과 안정에 기반을 둔 심

리적 복지의 중요성을 제안하고 사회적 지지와의 유의한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하와이 주 이민여성 및 가정단위 이민 연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II. 연구배경

1. 가정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지지

가정은 가족 요구와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계로서 경계를 통해 주변 생활환경과 구조적으로 분리(Deacon & Firebaugh, 1981)되기도 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을 조절하기도 한다. Piotr Sztompka(1979)의 체계-기능 모델 중 단순 기능분석에서 제시한 경계성 가정(the assumption of boundary)에 의하면 하나의 전체로서 체계가 환경과 맺는 관계에 대해 고립성 가정(the assumption of isolation)과 구조적 맥락성 가정(the assumption of structural context)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재순과 김שמני 역, 93-95). 어떤 체계는 경계를 통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연속체선상에 존재하는 독특한 관계의 질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체계와 환경 간 관계의 질은 극단의 '고립(또는 소외)'에서 '주변의 구조적 배경'에 이르는 연속체선의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를 이민가정과 같이 개별가정의 안정과 적응을 목적으로 적정한 사회적 관계의 질이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개별가정은 경계를 개방하거나 확장하려는 전략적 행동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네트워킹 함으로써 고립보다는 구조적 배경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민 가정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나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용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유용한 생활정보를 획득해 가면서 영향력과

통제가 가능한 생활의 범위를 넓혀나간다.

사회적 지지 혹은 사회적 네트워크는 가족 자원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사회적 지원망과 같은 가족자원에 해당한다. 대개 가족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환경자원(Rowland, Dodder 와 Nickols, 1985 : 218-225)이나 사회적 지지자원(최호숙, 1991), 사회적 지원 자원과 지역사회 지원 자원(조영희, 1991) 또는 대인관계자원과 지역사회자원(서리나, 1994)으로 규정하고 있다. Rowland, Dodder 와 Nickols(1985)는 인간-환경의 개념 틀 속에서 가족자원을 인적자원과 환경자원을 분류하였고, 환경자원은 물리적 환경자원과 함께 대인적 자원과 지역사회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했다. 최호숙(1991)은 가족자원을 개인적 자원과 가족체계의 내적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나누면서, 사회적 지지자원을 사회적 교체를 통한 지원이나 지지로 친구관계나 친척, 이웃, 지역사회, 사회기관의 보조 등으로 정의 내렸다. 최근 가족자원의 하위차원 중에서 사회적 관계나 환경자원의 자각과 그 관리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가족자원은 개별가정으로 하여금 생활세계의 관리 범위를 가족체계를 넘어 주변 사회 환경까지 확장해 준다(서리나, 1994). 가족에게 있어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는 환경 영역에 속하지만 개별가정의 합목적적 활동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과 환경의 사회적 지지 체계는 개인이나 개별가정이 주변 생활 환경과 맺는 호혜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써 사회적 지지 체계는 경계성 가정에 근거하여 개별 가정의 사회적 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가족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적응 요구에 대하여 사회적 지원망과 같은 가족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 연구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House와 Kahn은 사회적 지지 체계의 영역을 세 개의 주요 개념으로 나누고 그들 간의 관련성을 구분지어 설명한다.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와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그것이다(Cohen과 Syne, 1985). 즉 사회적 관계는 구조와 기능을 갖는데,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고, 사회적 지지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Wasserman과 Scott, Carrington(2005)은 사회적 관계 체계(social relational system)를 행위자와 사회적 유대가 하나의 단위 틀이 되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모여 만들어진 자료라고 하며, 구조와 기능의 단순한 통합이 아닌 그들 간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특성을 가진 관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Carrasco와 Miller(2006)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사회적 활동 유형, 의사소통과 정보 기술의 사용 능력, 함께 수행할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내포하는 장점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Van der Poel(1993)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상호작용접근, 역할관계접근, 정서적 접근, 교환적 접근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이 중 개인적인 지지적인 네트워크 연구에 가장 유용한 것은 교환적 접근으로 보았다. 이 교환적 접근은 Van Duijn과 Vermunt(2006)의 자기중심적이거나 개인적 네트워크 유형에 해당하고, Carrasco와 Miller(2006)의 자기중심적 접근방법을 속하는 것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다

른 지지자들과 상호 유대를 통해서 구축하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민과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을 설명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Litwin(1995)은 네트워크 유형을 친족 네트워크와 친구 및 동료 중심 네트워크, 가족원 중심 네트워크, 혼합된 유대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하고 지지 내용을 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긍정적인 지지, 옹호적 지지 등의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최근 연구들(Norbeck, Lindsey & Carrieri, 1981; Jayakody, Chatters & Taylor, 1993; 김은경, 2001)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을 정서적인 지원과 도구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 내용들은 이민자에게 새로운 이민 환경에서 '생활 장소 재조정'이라는 적응 능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rager, 1985). 특히 Yu와 Choe, Han(2002)은 미국 내 한국 이민자 연구에서 다른 아시안 이민자와 비교해 한국인 이민자들이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이민 2세대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하는 속도가 빠르므로 가족생활에서 한국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 이민 1세대와 가정단위 이민자들은 적응을 위해 한국인 집단 외에 다른 사회집단과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민 상황에서 가정생활의 안정과 적응에 필요한 주변 생활환경과의 사회적 관계를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적 지지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 연구

사회적 활동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별 가정의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지원체계는 가족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사회적 적응 문제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복지와 관련이

깊다(Berkman & Syme, 1979; Hammer, 1983). Wethington과 Kessler(1986)에 의하면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원을 실제 받는 경우보다 스트레스나 갈등을 주는 생활 상황이나 생활 사건들을 보다 잘 조정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제공받은 사회적 지원의 양이나 크기보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 보유히게 되는 어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Cohen & McKay, 1983; 박지원, 1985)과 일치한다.

Litwin(1995 : 158)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사회적 네트워크가 심리적 복지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환경에 재적응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비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를 다룬 관련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tinez 등(2002)은 페루인과 모로코인의 두 이민 집단의 여성을 대상으로 이민 상황에서 그들의 심리적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은 바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과였다. 이것은 스페인 거주 이민여성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을 연구한 Manuel F, Manuel, & Isidro(200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들에 의하면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유의한 하위변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자 수와 개인의 통제 능력을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었다. Anson와 Pilpel, Rolnik(1996)은 또한 이스라엘인 대상의 비교연구에서 이민기간이 3년체인 경우 심리적 복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 기간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밝혔다. 1900년 이민자 센서스를 활용하여 Hao

와 Kawano(2001)의 여성가장 이민가정과 노인 이민가정을 비교한 결과에서 이민지속기간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복지감 측정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일정 기간의 이민지속연수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요하고 이렇게 개발된 사회적 지원 체계는 이민자의 심리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복지 관련 선행 연구들을 보면, Noh 등(1992)은 캐나다에 이민 온 한국인의 우울증 증후에 대한 국제 비교문화 연구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문화적 적응과 생활정보의 부족 및 고립감으로 인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 한국인 이민가정에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인 측면의 문제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현아(2001)는 한인 여성의 성역할과 우울증의 관계 조사에서 서구의 성역할 태도 이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즉 서구인의 경우 비보수적이며 융통성있는 자신의 성역할 태도가 자신의 우울증의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반해, 한인 여성은 자신의 성역할 태도나 사회경제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나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여성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 관련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민 상황에서 기혼여성에게 발생하는 정신적인 문제는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에 심리적 복지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여성에게는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민 환경에서 한국 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 연구는 한국 여성의 가치체계와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김은경(2001)은 맞벌이가정 여성 연구에서 여성은 사회적 활동이 증대될 때 가정생활의 역할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확대가

족이나 친척 중심적인 지원에서 친구나 동료, 이웃 등의 사회적 지원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확대된 사회적 지원은 이제 여성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가족 외부의 사회적 지원에 따른 심리적 효과가 한국인의 가정생활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미숙, 1996)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또한 신영태(2002)는 한국의 중년층 여성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권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계열적 자료의 추적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기혼여성이 가족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이민 상황에 적용하고자 한다. 강한 가정역할과 그 책임 의식에 근거해서 볼 때 이민여성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적응을 위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이민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또한 심리적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이민여성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I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하와이 주 한국 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를 지원하는 지지자(supporters)와 지지구조(support

structure), 지지내용(support contents)은 각각 어떠한가? 셋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이들 변수 중에서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지지자별 지지구조에 따라 심리적 복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과 분석

조사대상은 한국인 이민여성으로 가정단위로 하와이 주로 이민 와서 1년 이상 거주한 기혼여성 주부이다. 이민여성의 가정은 부부가족을 의미하며 여성 및 남성 가장가족이거나 별거 가족은 제외된다. 거주 장소는 하와이 주 호놀룰루 시로 한정하였고, 거주 기간은 조사일(200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는 2004년 10월 한달 동안 조사교육을 받은 하와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관리 하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였다. 질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쳐 기본적인 추정과 관련정도를 파악한 뒤 본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 1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PC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평균, 분산 분석, T-검정, 회귀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등을 실시하였다.

2) 조사 도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연령과 교육수준, 취업상태, 남편 직업유형, 월평균 가정소득, 막내자녀연령, 자녀유무, 결혼지속년수이며, 이민생활 특성은 이민 지속기간과 이민 온 동기, 이민 장소의 선택 이유, 이민 적응시기, 이민생활 적응의 장애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social network)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자와 지지구조, 지지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지자(supporters)는 가족이나 친척, 한국인 친구나 동료, 외국인 친구나 동료, 종교단체, 소속 조직이나 단체,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대중매체로 구분된다. 지지 구조(support structure)는 지지자의 규모나 분류, 접촉빈도, 지지지속기간, 지지내용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지지내용 유용성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자가 지원하는 지지내용을 유용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지내용(support contents)은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인 지원으로 나누어 구체화하여 조사하였다.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는 한

국 이민여성이 가정생활의 안정과 적응의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복지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가정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안정성, 여성자신의 심리적 상태로 구성하였다. 세 차원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생활 만족도와 안정성, 심리적 건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이민생활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4세부터 70세까지이고 평균 44세이다. 교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이민생활 특성

N=117						
변수	집단	빈도(비율)	변수	집단	빈도(비율)	
연 령	30대 이하	34(29.1%)	연 령	6세 이하	18(15.4%)	
	40대	46(39.3%)		막 내	7~11세	26(22.2%)
	50대 이상	37(31.6%)		자 녀	12~17세	24(20.5%)
				연 령	18세 이상	40(34.2%)
교 육 수 준	고졸 이하	51(43.6%)	무자녀		9(7.7%)	
	대졸 이상	66(56.4%)	자 녀	자녀 없음	9(7.7%)	
취 업 상 태	전일제 직장	51(43.6%)	결 혼	자녀 있음	108(92.3%)	
	시간제/아르바이트	13(11.1%)		1~10년	28(23.9%)	
	자영업	31(26.5%)		지 속	11~20년	44(37.6%)
	전업주부	22(18.8%)		년 수	21년이상	45(38.5%)
남 편 직 업 유 형	전문직/관리직	42(35.9%)	이 민 기 간	1~ 9년	45(38.5%)	
	사무직	7(6.0%)		지 속	10~19년	41(35%)
	서비스직	25(21.4%)		20~33년	31(26.5%)	
	자영업	43(36.8%)				
한 달 평 균 소 득	~\$2000미만	8(6.8%)	이 민 적 용 시 기	1~3년	65(55.6%)	
	\$2000~\$3000미만	23(19.7%)		4~9년	34(29.1%)	
	\$3000~\$4000미만	30(25.6%)		10년 이상	18(15.4%)	
	\$4000~\$5000미만	26(22.2%)				
	\$5000이상~	30(25.6%)				

※ 중복응답변수(이민 온 동기, 이민장소 선택의 이유, 이민생활 적응시 장애요인)은 제외

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졸이상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대졸이 다소 높지만 두 집단 간의 표집 차는 크지 않다. 취업상태는 전일제 직장이 43.6%를 차지하지만 자영업, 주부, 시간제로 고르게 표집 되었다. 남편 직업은 자영업과 전문직이 비슷한 분포이다. 월평균 가정소득은 \$4,000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약 50% 씩을 차지한다. 이민여성 가정은 평균 자녀수는 약 2명이고, 무자녀인 가정의 비율은 7.7%이다. 막내자녀연령을 비교하면 18세 미만의 돌봄 기능과 교육적 요구가 높은 가정생활주기가 약 68%를 차지한다. 조사대상자 여성의 결혼지속 기간은 평균 18년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이민생활 특성을 살펴보면, 이민지속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고 33년까지 평균 약 14년이다. 이민 동기(중복응답)는 대부분이 더 나은 자녀교육(N=80)과 질 높은 가정생활(N=75), 그리고 새로운 직업(N=60)을 찾기 위해서로 나타나, 이민 여성이 구축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이민 목적들과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와이 주를 이민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중복응답)는 하와이 주에 가족이나 친척, 동료, 친구가 있어 상대적으로 적응이 쉬울 것이라고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N=77, 66%),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 근거하여 이민이 결정되고, 이민 온 후 이러한 지지자들로 부터 생활의 안정과 적응을 위한 초기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생활의 적응 시기는 평균 4.58년이며 최소 1년에서 최대 20년으로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민생활 적응에 있어 장애 요인(중복응답)은 대부분 영어사용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N=106, 91%)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이민여성과 가정은 대부분 언어 사용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를 실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이민 생활의 적응 기간이나 지지자 범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지지

1) 지지자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자는 관계 특성에 따라 사람과 기관, 대중매체로 분류하고 그들을 지지자로 인식하는 수준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N=117, 100%)의 응답 결과, 대부분이 88%에서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으로 그들은 이민생활을 지원해주는 지지자로 생각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7개 차원은 각각은 실제로 조사대상자와 그녀의 가정에 이민생활의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지자별로 조사대상자와 그 가정을 지원하는 지지 순위를 각각 비교해 보았다(표 2). 그 결과 조사대상자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을 제 1의 지지자로서 선택하였다. 다음 지지자로는 한국인 친구와 종교단체, 소속단체나 조직의 순이다. 한편 외국인 친구와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대중매체는 지지자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범주화된 지지자 관계 특성에 따라 지지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 관계 중심의 <사람> 영역은 가족이나 친척, 한국인 친구, 그리고 외국인 친구의 순이다. 사회적 관계 중심의 <기관> 영역은 종교단체의 지지순위가 가장 높고, 다음은 소속 단체나 조직, 그리고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가 가장 낮았다. 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는 <사람>과 <기관> 영역에 비해 중간이하의 지지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관계 특성에 따라 범주화된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 차원의 지지자에 대한 지지 순위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사대상자가 각 지지자로부터 지원받는 지지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표 2〉 사회적 지지_지지자에 따른 지지 순위(중복 응답)

지지 순위	사람			기관			대중매체
	가족 친척	한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외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종교 단체	소속단체 소속조직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인터넷 신문,TV 라디오
1	77(69.4%)	16(14.2%)	2(1.8%)	16(15.5%)	1(0.9%)	3(2.8%)	2(1.8%)
2	12(10.8%)	47(41.6%)	7(6.3%)	26(25.2%)	12(11.3%)	4(3.7%)	8(7.3%)
3	10(9.0%)	22(19.5%)	14(12.6%)	28(27.2%)	20(18.9%)	6(5.6%)	13(11.8%)
4	2(1.8%)	8(7.1%)	26(23.4%)	12(11.7%)	29(27.4%)	15(14.0%)	18(16.4%)
5	0(0.0%)	11(9.7%)	25(22.5%)	10(9.7%)	18(17.0%)	20(18.7%)	23(20.9%)
6	2(1.8%)	9(8.0%)	12(10.8%)	5(4.3%)	11(10.4%)	33(30.8%)	32(29.1%)
7	8(7.2%)	0(0.0%)	25(22.5%)	6(5.1%)	15(14.2%)	26(24.3%)	14(12.0%)
f(%)	111(100%)	113(100%)	111(100%)	103(100%)	106(100%)	107(100%)	110(100%)

2) 지지 구조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 구조는 지지자별 로 지지자 규모 및 분류, 지지내용 유용성, 지지지속기간, 접촉빈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3). 먼저 지지자 규모와 함께 지지 기관과 지지 매체를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가족 및 친척 지지자 수는 평균 7.3명(N=107)이며 1~4명인 경우가 약 46%를 차지한다. 하와이에 사는 한국인 친구 지지자는 평균 10.7명(N=115)이고 1~4명과 5~9명의 범주가 약 56% 정도이다. 외국인 친구 지지자는 평균 7명(N=96)으로 1~4명의 범주가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지지기관을 분류하면 종교단체(N=82) 지지자는 기독교가 가장 많다(53.8%). 조사대상자나 그 가족이 속한 단체나 조직(N=74) 지지자는 직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66.2%).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N=79) 지지자는 의료정보 제공 기관(36.7%)과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인학교(35.4%)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대중매체(N=114) 지지자는 신문(44.7%)과 TV(41.2%)가 각각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지지내용의 유용성에서 각 지지자가 제공하는

지지내용에 대해 조사대상자는 모두 중간점수(3점) 이상의 수준으로 지지 정보의 내용을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인 친구(N=106)와 가족 및 친척(N=115) 지지자가 제공하는 지지내용의 유용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N=80)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내용의 유용성 인식이 가장 낮다. 각 지지자별로 지지지속기간을 비교하면, 종교단체 지지자와 가족 및 친척 지지자가 모두 지지지속기간이 각각 평균 12년으로 가장 길었고, 소속단체나 조직 지지자와의 지지지속기간이 평균 6.6년으로 가장 짧다. 접촉빈도는 하와이 주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 지지자를 제외한 6개 차원의 지지자 모두 대부분 일주일 1회 이상의 빈번한 접촉을 하며 지지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지 구조의 결과로 부터 조사대상자는 지지내용의 유용성 인식이나 접촉빈도를 볼 때 외국인 친구들이나 직장과 같은 공식적인 소속기관, 그리고 대중매체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한국인 친구와 같이 한국인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는 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이민자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시한 언어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와 관련된다. 영어를 소통의 매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민여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이민생활의 적응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지 못하

〈표 3〉 사회적 지지_지지자에 따른 지지 구조

지지자	사람			기관			대중매체	
	가족 친척	한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외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종교 단체	소속단체 소속조직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인터넷 신문, TV 라디오	
지지자 규모/분류 -(사람)지지자 수 -(기관)지지 기관 -(매체)지지 매체	1~4명 N=49 (45.8%)	1~4명 N=38 (33.0%)	1~4명 N=40 (41.7%)	기독교 N=63 (53.8%)	어학원 N=2 (2.7%)	보육정보 N=5 (6.3%)	인터넷 N=5 (4.4%)	
		5~9명 N=26 (22.6%)		카톨릭 N=14 (12.0%)	정규학교 N=11 (14.9%)			교육정보 N=17 (21.5%)
	5~9명 N=28 (26.2%)	10~14명 N=30 (26.1%)	5~9명 N=23 (24.0%)	불교 N=5 (4.3%)	아르바이트 N=6 (8.1%)	의료정보 N=29 (36.7%)	라디오 N=11 (9.6%)	
		15명이상 N=21 (18.3%)		10명이상 N=33 (34.4%)	종교없음 N=35 (29.9%)			동호회 N=2 (2.7%)
10명이상 N=30 (28.0%)				자원봉사 N=4 (5.4%)				
지지내용 유용성	평균 3.84(점)	평균 3.85(점)	평균 3.59(점)	평균 3.71(점)	평균 3.52(점)	평균 3.40(점)	평균 3.48(점)	
지지 지속기간	평균 11.7(년)	평균 9.6(년)	평균 8.3(년)	평균 12.1(년)	평균 6.6(년)	평균 8.23(년)	평균 10.4(년)	
접촉 빈도	일주일/1회이상	N=55 (51.9%)	N=57 (49.6%)	N=42 (45.7%)	N=67 (81.7%)	N=62 (83.8%)	N=18 (22.8%)	N=90 (78.9%)
	1개월/1회이상	N=28 (26.4%)	N=46 (40.0%)	N=35 (38.0%)	N=13 (15.9%)	N=9 (12.2%)	N=19 (24.1%)	N=19 (16.7%)
	6개월/1회이상	N=12 (11.3%)	N=7 (6.1%)	N=11 (12.0%)	N=2 (2.4%)	N=1 (1.4%)	N=5 (6.3%)	N=4 (3.5%)
	1년/1회이상	N=11 (10.4%)	N=5 (4.3%)	N=4 (4.3%)	N=0 (0.0%)	N=2 (2.7%)	N=37 (46.8%)	N=1 (0.9%)

기 때문이다.

3) 지지 내용

조사대상자는 각 지지자들로부터 지원받는 가장 중요한 지지내용을 선택하였다(표 4). 가족 지지자로부터 대부분 정신적인 안정과 격려(83%)를 지원 받으며, 한국인 친구들은 정신적인 안정(51%)과 문화적 차이 상담(22%), 이민생활 정착을 위한 조언(18%) 등을 지원 받는다. 외국인 친구들은 정신적인 안정(43%)과 함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담(34%)을 도와주었다. 종교단체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정신적인 안정과 격려(75%)를 제공한다. 소속된 기관이나 조직은 문화적 차이 상담(27%)과 함께 재정적 원조(21%)이나 어학정보(17%) 등의 도구적 지원도 하였다.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과 복지단체는 문화적 차이 상

담(31%)과 하와이 주에 시행되는 복지서비스 정보(26%)를 제공했다. 대중매체는 하와이 주의 복지서비스 정보(31%)와 문화적 차이 상담(29%) 그리고 이민생활 정착 정보(20%)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범주화된 지지자 관계 특성에 따라 지지내용을 앞서 제시한 지지 순위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적 관계 중심의 <사람> 영역은 조사대상자의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지순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 중심의 <기관> 영역에서 종교단체의 지지순위가 높은 이유는 지지내용이 개인적 관계 중심의 <사람>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안정을 유용하기 때문이다. 중립적 정보를 제공하는 <대중매체>는 그 특성에 따라 정서적 지원과 함께 도구적 정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지내용이 정서적인

(표 4) 사회적 지지_지지자에 따른 지지 내용(중복 응답)

지지자		사람			기관		대중매체	
		가족 친척	한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외국인 친구, 이웃 동료 등	종교 단체	소속단체 소속조직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인터넷 신문, TV 라디오
정서적 지원	정신적 안정 기여	83 (79.0%)	51 (47.7%)	40 (43.0%)	67 (75.3%)	12 (13.6%)	9 (10.6%)	11 (10.9%)
	문화 차이 상담	1 (1.0%)	23 (21.5%)	34 (36.6%)	6 (6.7%)	24 (27.3%)	26 (30.6%)	29 (28.7%)
	이민생활 정착 조언	8 (7.6%)	18 (16.8%)	10 (10.8%)	11 (12.4%)	11 (12.5%)	10 (11.8%)	20 (19.8%)
	중요한 결정 의논	6 (5.7%)	6 (5.6%)	1 (1.1%)	3 (3.4%)	1 (1.1%)	2 (2.4%)	1 (1.0%)
도구적 지원	재정적 원조	4 (3.8%)	0 (0.0%)	0 (0.0%)	0 (0.0%)	18 (20.5%)	2 (2.4%)	1 (1.0%)
	하와이주 복지 정보	2 (1.9%)	5 (4.7%)	4 (4.3%)	2 (2.2%)	7 (8.0%)	22 (25.9%)	31 (30.7%)
	어학 정보 제공	1 (1.0%)	4 (3.7%)	4 (4.3%)	0 (0.0%)	15 (17.0%)	14 (16.5%)	8 (7.9%)
응답자 수(N, %)		105 (100%)	107 (100%)	93 (100%)	89 (100%)	88 (100%)	85 (100%)	101 (100%)

경우 도구적인 경우보다 지지순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적 복지

심리적 복지는 가정생활 만족도와 안정성, 그리고 여성이 지각하는 심리적 건강으로 구성되며 각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 수준이 높다(표 5). 전체 심리적 복지는 평균 3.73점으로 중간 점수이상의 수준이다. 세 하위차원 중에서 심리적 건강이 가장 높고(평균 3.99점) 가정생활만족도(평균 3.59점)와 가정생활안정성(평균 3.59점)은 동일한 수준이다. 내용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가

장 높고, 재정 상태가 가장 낮다. 또한 가사분담과 남편 직업 영역도 평균 이하 수준이다. 가정생활안정성은 이민생활 적응을 높게 지각하였고, 다음은 이민생활에 대한 정신적 안정,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차이의 이해와 이민 온 후 경제적 안정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조사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데, 특히 미래생활에 대한 희망을 보유하고 있는 지각 수준이 가장 높다. 나머지 심리적 건강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 간에 평균 차는 서로 크지 않으므로 한국 이민여성 조사대상자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민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상태로 정신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심리적 복지 수준

N=117

심리적 복지		평균	표준편차
가정생활 만족도	1. 가족원의 가사노동 조력에 대한 만족	3.45	1.08
	2. 결혼생활 또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	3.62	.88
	3. 가정의 경제적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	3.32	.96
	4.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	3.84	.77
	5. 남편의 직업이나 지위에 대한 만족	3.46	.95
	6. 하위에서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만족	3.66	.83
	전체	3.59	.65
가정생활 안정성	1. 이민생활 환경에 대한 안정과 적응	3.72	.76
	2. 이민 후 우리 가정의 정신적 안정 상태	3.68	.71
	3. 이민 후 우리 가정의 경제적 안정 상태	3.44	.92
	4. 이민 후 우리 가정의 문화적 경험과 이해	3.47	1.06
	전체	3.59	.69
심리적 건강	1. 내 인생이 가치있다고 느끼는 정도	4.00	.79
	2. 내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느낌	3.90	.87
	3. 내 생활이 행복하다는 느낌	4.04	.70
	4. 모든 일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4.03	.75
	5. 나와 가족에게 미래나 희망이 있다는 생각	4.14	.76
	6. 요즘 들어 유쾌하고 즐겁다는 느낌	3.89	.86
	7.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	3.97	.88
전체	3.99	.66	
전체	3.73	.50	

4.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복지

1)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이민생활 특성과 심리적 복지 변수의 관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이때 이민생활 특성 변수 중 중복 응답된 이민 동기와 이민 적응 및 이민 장소 선택 이유, 이민생활 적응의 장애요인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심리적 복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연령과 취업상태, 월평균소득, 자녀유무, 교육수준, 이민지속기간이다. 구체

<표 6>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복지의 차이분석

특성 변수	집단	N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안정성	심리적 건강	전 체
연령	30대 이하	34	3.71	3.45	4.30	3.82
	40대	46	3.52	3.51	3.74	3.59
	50대 이상	37	3.58	3.82	4.02	3.81
	F 값	117	.79	3.12	7.83**	2.89
취업 상태	전일제 직장	51	3.48	3.47	3.87	3.61
	시간제/아르바이트	13	3.40	3.33	4.17	3.63
	자영업	31	3.79	3.90	4.07	3.92
	전업주부	22	3.70	3.60	4.01	3.78
F 값	117	2.02	3.50*	1.10	2.92*	
월 평균 소득	~\$2000미만	8	3.04	2.84	4.05	3.31
	\$2000~\$3000미만	23	3.46	3.50	4.00	3.65
	\$3000~\$4000미만	30	3.66	3.61	4.09	3.79
	\$4000~\$5000미만	26	3.65	3.70	3.96	3.77
	\$5000이상~	30	3.73	3.72	3.91	3.79
F 값	117	2.07	3.06*	.31	1.84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	4.19	3.50	4.33	4.01
	자녀 있음	108	3.55	3.60	3.97	3.70
	t 값	117	2.93**	-.39	1.61	1.78
교육 수준	고졸이하	51	3.58	3.54	3.86	3.66
	대졸이상	66	3.60	3.62	4.10	3.78
	t 값	117	-.18	-.60	-1.98*	-1.23
이민 지속 기간	1~9년	45	3.53	3.31	3.94	3.59
	10~19년	41	3.64	3.73	4.08	3.82
	20~33년	31	3.63	3.81	3.96	3.80
	F 값	117	.40	6.51**	.50	2.69

P<.05* P<.01**

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연령은 심리적 건강 변수와 $P<.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대 여성 집단이 심리적 건강 상태가 가장 높다. 여성의 취업상태는 가정생활 안정성과 전체 심리적 복지와 차이가 나타나 자영업 종사자 집단이 생활안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다음은 전업주부, 전일제 직장의 순이며, 시간제 직장인 집단이 낮다. 전체 심리적 복지는 자영업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가정생활안정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생활안정성 수준이 높다. 자녀유무는 가정생활만족도와 $P<.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 응답자가 적은(9명) 무자녀인 집단이 자녀가 있는 집단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교육수준은 심리적 건강과 유의하여 대졸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심리적 건강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한다. 이민지속기간은 가정생활안정성과 $P<.0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 이민 온 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가정생활안정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다.

2) 심리적 복지에 대한 주요 변수의 영향력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하위 영역별로 보면, 가정생활만족도의 주요 변수는 자녀유무와 월평균소득으로, 무자녀이고 월평균소득이 많은 집단의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가정생활안정성의 관련변수는 이민지속기간으로, 이민지속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안정성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심리적 건강의 영향력 있는 변수는 교육수준으로, 대졸이상 집단이 고졸이하 집단보다 심리적 건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자녀유무와 이민지속기간, 취업상태이다. 이민기간이 길고 무자녀이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민여성 집단일수록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유무와 이민지속기간, 취업상태는 전체 심리적 복지의 분산을 각각 24%, 22%, 19%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생활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이한 문화와 다른 생활 환경에 익숙해지는 정도에 따라서 심리적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 관련 생활 요구가 이민여성의 심리적 부담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은 심리

〈표 7〉 심리적 복지에 대한 주요 변수의 독립적 영향력

종속변수	주요 변수	회귀계수 ^b	β	상수	R ²
가정생활만족도	자녀유무	-.72	-.30**	3.61	.17
	월평균소득	.11	.22*		
가정생활안정성	이민지속기간	.19	.22*	2.69	.14
심리적 건강	교육수준	.25	.19*	4.29	.12
전 체 (심리적 복지)	이민지속기간	.15	.24*	3.53	.14
	자녀유무	-.40	-.22*		
	취업상태	7.768E-02	.19*		

$P<.05$ * $P<.01$ ** ※더미변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0, 대졸이상 1
자녀유무는 자녀없음 0, 자녀있음 1

적인 복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구조와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구조 변수와 심리적 복지의 관련성 조사를 위해 분산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표 8). 먼저 지지자 규모의 측면에서 한국인 친구 집단은 가정생활안정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와이에 한국인 친구가 많은 집단일수록 가정생활안정성 수준이 높다. 외국인 친구 집단과 심리적 건강 그리고 특히 전체 심리적 복지 수준과 $P<.01$ 수준에서 의미 있게 나타나 외국인 친구가 많은 집단이 심리적인 건강 수준이 높고 전체 심리적인 복지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이나 복지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정보는 가정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을 보여 다른 정보보다 교육정보를 지원받는 집단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

접촉빈도 측면에서 종교단체와 가정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종교단체와 6개월에 1회 이상의 집단이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그들 집단의 적은 빈도수($N=2$)를 감안할 때 1주일에 1회 이상 자주 종교단체와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이민 여성 집단이 1개월에 1회 이상 접하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생활만족도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지지지속기간의 측면에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지자가 심리적 복지의 각 차원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 가족 지지자와의 지지지속기간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전체 심리적 복지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 등과 오래 지지 관계를 가진 집단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다. 한

편 한국인 친구와 외국인 친구, 소속된 단체나 조직, 하와이 주의 공공기관과 복지단체, 대중매체와의 지지지속기간은 모두 가정생활안정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외국인 친구와의 지지지속기간은 $P<.001$ 수준에서 가정생활안정성과 전체 심리적 복지와 모두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여 외국인 친구와의 오래 지원적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의 가정생활안정성과 전체 심리적 복지는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한국인 친구와 대중매체 정보와의 지지지속기간도 $P<.01$ 수준에서 각각 높은 유의성이 나타내 한국인 친구와 6~10년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집단과 대중매체 정보를 오래 활용하는 집단일수록 안정성이 높다. 또한 소속된 단체나 조직 그리고 하와이 주가 제공하는 정보가 모두 6~10년 정도 지지지속기간을 갖는 집단의 가정생활안정성 수준이 높았다. 소속 단체나 조직과 6~10년, 한국인 친구와 6년 이상의 지속적 지원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의 전체 심리적 복지 수준은 다른 집단보다 높다.

지지내용 유용성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지원 정보의 유용성은 가정생활만족도와 전체 심리적 복지와 유의하게 나타나 가족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유용하게 지각하는 집단이 가정생활만족도와 전체 심리적 복지 수준도 높게 인식한다. 하와이 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는 가정생활만족도와 가정생활안정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와이 주의 복지서비스정보의 유용성을 중간정도 수준으로 지각하는 집단이 만족도 수준도 매우 높았다($P<.01$). 또한 하와이 주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정보의 내용 유용성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정생활안정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심리적 복지 척도를 구성하는 세 차원에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지지 구조 변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표 8〉 지지구조와 심리적 복지의 차이분석

지지구조	지지자	집단	N	심리적 복지			
				가정생활만족도	가정생활안정성	심리적 건강	전 체
지지자 규모 및 분류	(사람) 한국인 친구 등	1~4명	38	3.44	3.38	4.00	3.61
		5~9명	26	3.60	3.59	3.91	3.70
		10~14명	30	3.61	3.67	4.12	3.76
		15명 이상	21	3.78	3.95	3.88	3.87
		F 값	115	1.25	3.24*	.66	1.35
	(사람) 외국인 친구 등	1~4명	40	3.46	3.46	3.75	3.56
		5~9명	23	3.77	3.72	4.12	3.87
		10명 이상	33	3.78	3.80	4.14	3.91
	(기관)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F 값	96	2.81	3.85	4.34*	6.88**
		보육정보	5	3.43	3.50	3.31	3.42
		교육정보	17	3.92	3.81	4.13	3.95
		의료정보	29	3.51	3.78	4.05	3.78
성인학교		28	3.48	3.55	4.11	3.71	
F 값	79	2.84*	.97	2.63	2.08		
접촉 빈도	(기관) 종교 단체	1주일/1회 이상	67	3.64	3.66	4.02	3.77
		1개월/1회 이상	13	3.09	3.62	3.91	3.54
		6개월/1회 이상	2	4.17	2.63	3.29	3.36
	F 값	82	4.72*	2.14	1.43	1.73	
지지 지속 기간	(사람) 가족 및 친척	1~5년	37	3.41	3.40	3.97	3.59
		6~10년	19	3.52	3.66	3.80	3.66
		11년 이상	49	3.78	3.74	4.09	3.87
		F 값	105	4.42*	2.59	1.37	3.53*
	(사람) 한국인 친구 등	1~5년	50	3.48	3.36	3.87	3.57
		6~10년	29	3.61	3.81	4.07	3.83
		11년 이상	35	3.73	3.74	4.06	3.84
	F 값	114	1.57	5.54**	1.21	4.25*	
	(사람) 외국인 친구 등	1~5년	43	3.50	3.37	3.80	3.56
		6~10년	35	3.71	3.84	4.09	3.88
		11년 이상	15	3.88	3.95	4.13	3.99
		F 값	93	2.81	8.84***	2.55	8.40***

	(기관) 소속단체 소속조직	1~5년	43	3.49	3.40	3.94	3.61
		6~10년	20	3.87	3.91	4.14	3.97
		11년 이상	11	3.42	3.68	3.86	3.65
		F 값	74	2.98	4.43*	.98	4.53*
	(기관)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1~5년	38	3.47	3.49	4.10	3.69
		6~10년	25	3.67	3.98	3.95	3.87
		11년 이상	16	3.71	3.69	4.05	3.82
		F 값	79	1.40	4.80*	.43	1.23
	(매체) 인터넷 신문 TV 등	1~5년	46	3.60	3.39	3.98	3.66
		6~10년	24	3.54	3.65	3.99	3.73
		11년 이상	43	3.67	3.84	3.97	3.82
		F 값	113	.33	5.36**	.01	1.26
지지 내용 유용성	(사람) 가족 및 친척	하	15	3.26	3.28	3.75	3.43
		중	23	3.49	3.62	3.98	3.70
		상	68	3.69	3.67	4.07	3.81
		F 값	106	3.50*	1.84	1.36	3.55*
	(기관) 하와이주 공공기관 복지단체	하	13	3.09	3.27	4.13	3.50
		중	34	3.73	3.71	4.06	3.83
		상	33	3.60	3.80	4.02	3.81
		F 값	80	6.80**	3.30*	.14	2.75

P<.05* P<.01** P<.001***

알 수 있다. 즉 가정생활만족도는 지지내용 유용성 수준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나는 데, 지지자가 제공하는 지원내용을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다양한 생활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족감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생활안정성의 경우 특히 외국인 친구와 오랫동안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집단일수록 안정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로부터 이민생활 적응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생활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 또한 외국인 친구의 규모나 지지적인 지속기간이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는데, 이것

은 한국 이민 여성과 그 가정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정주(定住) 주체인 기존의 사회구성원들과 지지적인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V. 연구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하와이 주에서 가정단위 한국이민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민여성과 가정을 지원해 줄 가족이나 친구 등이 거주하는 곳을 이민 대상 장소로 선택하는 경향이다. 이것은 Yu와 그의

동료들(2002)이 제시한 한국 이민자들이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현상과 일치한다. 이미 형성된 기존의 개인적 관계망은 국가를 초월하여 이민여성과 그녀의 가정에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민 여성에게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되고 있다.

둘째, 이민여성은 개인적 관계 중심의 가족 및 한국인 친구, 외국인 친구 지지자와 정신적 안정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지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종교단체는 사회적 관계에 속하는 지지자이지만 가족 지지자와 같은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의 영향력은 최초의 하와이 한국 이민자가 기독교인들이고 2003년 72개의 많은 한인교회가 하와이에 존재(국립민속박물관, 2003 : 202) 하는 것과 관련된다. 한국 이민여성은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공격 지원 정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과 같은 정서적 지원 외에 이민생활 적응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심리적 복지의 하위척도 구성과 하위 척도 간의 정적 관계와 관련된다. 즉 가정단위 이민 상황에서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여성 자신이 지각하는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전반의 만족감과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여성 연구는 여성을 둘러싼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의 영향력과 함께 지역이나 이민과 같은 주변 생활환경의 차이와 관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이민지속기

간과 자녀유무, 취업상태로 나타났다. 이민기간의 경우 시간이 경과될수록 생활환경에 익숙하게 되어 가정생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무자녀인 이민여성이 전반적인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았다. 이것은 역으로 자녀 존재가 부양활동 요구를 증가시켜 주부의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무자녀 가정의 적은 표집수(9개)와 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데, 이것은 자영업의 직업적 특성이 환경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민생활 적응에 기여하여 가정생활안정성에 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정단위 이민의 경우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는 이민생활의 특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인 친구의 수와 지지 지속기간이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친구가 많은 것은 이민여성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하고, 외국인 친구와의 지지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이민여성의 가정생활안정성에 향상시켜 심리적 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증가시켰다. 이민여성이 외국인 친구를 지지자로 인식하는 지지 순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민생활에서 현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는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이민여성은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어사용에 따른 의사소통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이민여성 및 그 가정의 적응 여부는 영어사용 및 의사소통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외국인 친구와 직장, 하와이 주의 복지 서비스, 그리고 대중매체 등과 같이 영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해야 하는 지지자와의 지지적인 관계와 빈도를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 지지자기 제공하는 지지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들은 이민여성과 그 가정의 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었고,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민 환경의 유용한 정보 획득을 위하여 영어를 사용한 소통을 원활히 하거나,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지자 관계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하와이 주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의료정보와 함께 성인학교(adult school)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민여성이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민여성은 성인학교에서 미국문화와 영어회화가 결합된 수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검증 과정을 통해 이민 여성과 그 가정의 사회적 지지 체계가 사회적 관계망과 같은 가족자원처럼 기능하고 있고, 가정생활의 만족감과 안정성, 심리적 건강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이민여성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가족형태나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에 국 적용할 수 없고 광범위하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단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적 조건이 다른 생활환경에서 이민여성과 그 가정이 어떻게 적응하며 생활하는 지를 분석하는 데 실용적인 의의를 갖는다. 또한 가족자원관리의 체계적 관점에서 문화가 다른 사회 환경에서 가정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경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지, 그리고 가족자원에 따른 관리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 접수일 : 2006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0월 18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1월 25일

【참 고 문 헌】

- 1) 국립민속박물관(2003). 미국하와이 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34.
- 2) 김은경(1995).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부 부부의 역할 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5.
- 3)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서리나(1994). 주부의 가족자원적정지각과 대상별 가정관리 수행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신영태(2002). Network formation in protest movement in South Korea since 1970 to 2001. Asian Women 15, 231-257.
- 6) 이미숙(1996).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효과: 주효과가 완충효과의 검증을 위한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 한국 사회학 30, 449-468.
- 7) 이현아(2001). 재미 한인 여성의 성역할과 우울증에 관한 연구(Korean women in America :gender-role attitude and depress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a-Champaign 박사학위논문.
- 8) 조영희(1991). 자원적정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42-243.
- 9) 조재순, 김선미 역(1995). 체계와 기능.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10) 최호숙(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취업 주부가정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갈등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Anson, O., Pilpel, D., & Rolnik, V. (1996).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immigrant referrals to Colonoscopy. *Social Science and Medicine* 43(9), 1309-1316.
- 12) Berkman, L. & Syme, S.L.(1979). Social Network,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 a nine year fellow 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186-204.
- 13) Carrasco, J.A. & Miller, E.J.(2006). Exploring the propensity to perform social activities : a social network approach. *Transportation* 33, 463-480.
- 14) Cohen & McKay(1983).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In a Baum, A., Singer, J.E., & Taylor, S. E.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 253-267. New York : Academic Press.
- 15) Cohen, S. & Syne, S.L.(Eds.)(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 Academic Press.
- 16)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17) Hao. L. & Kawano, Y.(2001). Immigrants' welfare use and opportunity for contact with co-ethnics. *Demography* 38, 375-389.
- 18) Hammer, M.(1983). Core and extended social networks in relation to health and illn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7, 405-411.
- 19) Jayakody, R., Chatters, L.M. & Taylor, R.J.(1993). Family support to single and married African American mothers: the provision of financial, emotional, and child care assista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261-276.
- 20) Kim Y.K & Grant, D.(1997). Immigration pattern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among Korean immigrant women. *Cultural Diversity & Mental Health* 3(4), 235-245.
- 21) Litwin, H.(1995). The social networks of elderly immigrants : an analytic typ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9(2), 155-174.
- 22) Manuel F., M.G., Manuel, G.R., & Isidro, M.J.(2002).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in Moroccan and Peruvian immigrant women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3), 287-310.
- 23) Moon, Sungsook(2003). Immigration and Mothering : cases studies from two generations of Korean Immigrant women. *Gender & Society* 17(6), 840-860.
- 24) Noh, S., Avison, W.R., & Kaspar, V. (1992).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1), 84-91.
- 25) Norbeck, J.S., Lindsey, A.M., & Carrieri, V.L.(1981).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social support. *Nursing Research* 30, 264-269.
- 26) Piotr Sztompka(1979). *System and func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27) Prager, E.(1985). Older English-speaking immigrants in Israel : observations on their perceived adjustment. *Journal of Jewish Communal Service* 61, 209-269.
- 28) Rowland, V.T., Dodder, R.A., & Nickols,

- S.Y.(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4(2), 218-225.
- 29) Van der Poel, M.(1993). Delineating personal support network. *Social Networks* 15, 49-70.
- 30) Van Duijn, M.A.J., & Vermunt, J.K. (2006). What is special abou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ology: European Journal of Research Methods for the Behavioral & Social Sciences*. 2(1), 2-6.
- 31) Wasserman, S., Scott, J., & Carrington, P.J.(2005). Introduction. In P.J. Carrington, J, Scott, & S. Wasserman(Eds.),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1-8.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2) Wang, Y.L.R. & Tsang, A.K.T(2004). When Asian immigrant women speak : From mental health to strategies of being.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4), 456-466.
- 33) Wethington, E. & Kessler, R.C.(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9.
- 34) Yoon, In-Jin(1997). *On my own : Korean businesses and race relations in America*.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 35) Yu, E.Y., Choe, P., & Han, S.I.(2002). Korean po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2000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socio-economic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6(1), 71-107.